

<p>We are told that a picture speaks louder than a thousand words. G.K. Chesterton once wrote: "Don't believe in anything that can't be told in coloured pictures". And that is what Daniel chapter 7 is all about – it is a history of the world in coloured pictures. In his dream Daniel is being given a view of the future, and he is being shown basically 2 things:</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What the Future Holds; and much more importantly, 2. Who Holds the Future. Let us look at each in turn. 	<p>천마디 말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G. K. 체스터턴은 이런 말을 적었습니다: "생생한 그림으로 전해줄 수 없는 것은 어떤 것도 믿지 말아라".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다니엘 7 장에서 전하고자 하는 모든 것입니다 - 다니엘 7 장은 세계 역사를 생생한 그림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꿈에서 다니엘은 미래에 관한 것을 전해 받는데, 그에게 보여진 것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래에 일어날 일; 그리고 훨씬 더 중요하게, 2. 누가 미래를 주관하는가. 각각을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합시다.
<p>1. What the Future Holds Daniel 7 gives us a panorama of world history. The 4 beasts described in vv. 4-7 are the superpowers of the ancient world. Did you know that in the early days of the USA, Benjamin Franklin suggested that a suitable emblem for the emerging nation might be the harmless turkey. No-one listened to him, of course! Just imagine if he had had his way – it might have changed the whole course of world history. Can you imagine America as one of the greatest superpowers of the modern world with a harmless turkey as its emblem or symbol? Instead we talk about the American eagle, this great bird of prey that is ready to swoop down on the nations. And the emblem of the former Soviet Union (USSR) used to be the bear. In the golden age of the British Empire, Britain was seen as the rampaging lion. When we think of the superpowers of the world, we think of beasts or birds of prey. And that is what Daniel is being shown in his dream in chapter 7.</p>	<p>1. 미래에 일어날 일 다니엘 7 장에서는 세계 역사의 파노라마가 펼쳐집니다. 4-7 절에 묘사된 짐승 넷은 고대의 초강대국들을 가리킵니다. 미국의 초기에 벤저민 프랭클린이 신흥 국가에 적합한 표상으로 무해한 칠면조를 제안했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물론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니다! 만약 그의 말대로 되었다고 상상해보십시오 - 그것은 세계 역사의 추세 전체를 바꾸었을 수도 있습니다. 현대 세계의 가장 위대한 초강대국 중 하나인 미국의 표상 혹은 상징이 무해한 칠면조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대신 우리는 미국의 독수리, 여러 국가들을 내리 덮칠 준비가 되어있는 이 맹금에 대해 말합니다. 또한 전 소비에트 연방 (USSR)이 사용했던 표상은 곰이었습니다. 대영 제국의 황금기에 영국은 광란하는 사자로 보여졌습니다. 우리가 세계의 초강대국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짐승이나 맹금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7 장에서 다니엘이 그 꿈 속에서 보았던 것입니다.</p>
<p>These 4 beasts that he sees represent the 4 superpowers of the ancient world – 4 godless empires which dominated the world from Daniel's time onwards, right up to, and indeed beyond the coming of Christ. These were some of the greatest empires in the whole of world history. Babylon is the lion with the wings of an eagle. Thanks to God's intervention in the life of Nebuchadnezzar (remember we were told of his conversion in chapter 4), Babylon had for a time a human face to it – "the heart of a man was given to it" (v. 4). There was something humane in the government of Babylon – thanks to God's intervention in Nebuchadnezzar's life. And then on the horizon Daniel sees the next great world power lining up – this great lumbering bear which is the Medo-Persian empire, raising itself on its haunches, ready to lurch forward, its mouth dripping with blood, and hungry for conquest. And then there is a third world power, a leopard with wings. There is nothing more beautiful and graceful than seeing a leopard running across the African plains. But can you imagine a</p>	<p>다니엘이 본 이 짐승 넷은 고대의 초강대국 네 나라를 나타냅니다 - 다니엘의 시대에서부터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실제로는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도 여전히 세계를 지배했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네 개의 제국들입니다. 이들은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몇몇 제국들 중 하나였습니다. 바빌론은 독수리의 날개가 달린 사자입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삶에 개입하신 덕분에 (4 장에서 느부갓네살의 회심에 대해 들었던 것을 기억하시지요), 바빌론은 잠시 동안 인간의 얼굴을 가졌습니다 -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4 절). 바빌론의 통치에는 무언가 인간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삶에 개입하신 덕분이지요. 그리고 지평선 위로 다니엘은 다음에 세상의 권세를 쥐게 될 나라들이 줄을 선 것을 봅니다 - 이 육중한 꿈은 메대-바사 제국으로, 그 둔부를 들어 몸을 일으켜, 금방이라도 사냥감을 찾아 앞으로 나갈 듯이 피를 뚝뚝 흘리는 입을 하고, 정복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대국인 날개 달린 표범이 나옵니다. 아프리카 평원을 가로질러 달리는 표범을 보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우아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날개 달린 표범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다니엘은 가공할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이 왕국, 즉 고대 그리스 제국을 봅니다.</p>

leopard with wings? Daniel sees this kingdom – the Greek empire – advancing at terrifying speed. It is a kingdom that advances so rapidly to conquer the world in next to no time, that it takes your breath away. The story is told of Alexander the Great (who died at the age of 33) being found weeping because there were no more worlds for him to conquer – so rapid was his climb to power. And then Daniel looks again and sees this final creature, described in v. 7 as so terrifying and terrible that it defies description. It sounds like it must have come from Jurassic Park. It rages and rampages and crushes and annihilates everything that stands in its way. This is the great Roman empire. It was said of the Romans that they “make a desert and call it peace”. The Roman empire in turn gives rise to a multiplicity of kingdoms – the 10 horns. I am not going to be so stupid as to stand here and tell you what those 10 horns represent. I don’t have the faintest clue but they do represent a number of kingdoms arising out of the Roman empire, culminating it seems, in the end in this little horn which “has eyes like the eyes of a man and a mouth that speaks boastfully” (v. 8). The Bible seems to indicate that this is the kingdom of the antichrist, the great culminating evil at the end of time just before Christ returns. All these superpowers have one thing in common – they are all beasts of prey. This is world history as we know it. One after another these horrific monsters have stalked across the stage of world history, their mouths dripping with blood, devouring and crushing everything that stands in the way – whether it is Nebuchadnezzar of Babylon or Cyrus the Persian or Alexander the Great or Emperor Nero or any other Roman emperor or, in our modern age, Stalin or Hitler or Pol Pot or whoever. Why is the history of mankind like that? Where do these monstrous regimes come from? Look at vv. 2-3 “Daniel said: “in my vision at night I looked, and there before me were the four winds of heaven churning up the great sea. Four great beasts, each different from the others, came up out of the sea.” What Daniel is being shown here, and what we need to understand, is that these monsters come from the same stock as you and I. They come out of the vast sea of humanity. The imagery of the sea in the Bible, especially the Old Testament, is usually understood in that way – as the sea of nations, the sea of humanity. It is out of the vast seething mass of humanity that these world leaders come. These unspeakable horrors arise from human nature. To quote G.K. Chesterton’s famous reply to the question posed by the Times newspaper in England – “What is wrong with the world today?” And what was that reply? It was short and succinct – “I am.”

이는 너무나 빨리 발전해 눈 깜짝할 사이에 세계를 정복한 왕국으로,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알렉산더 대왕 (33 세의 나이에 사망한)이 더 이상 정복할 세상이 없어서 울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는 순식간에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다시 보니 7 절에 묘사된 이 마지막 짐승, 너무나 끔찍하고 무서워서 묘사할 수 없을 정도의 짐승이 보입니다. 이 짐승은 마치 쥘라기 공원에서 온 것처럼 들립니다. 이것은 격분하고 광란하며 그 길을 막아서는 모든 것을 짓밟고 전멸시킵니다. 이는 위대한 로마 제국을 가리킵니다. 로마인을 이야기할 때 그들은 "불모지를 만들고 그것을 평화라고 부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결국 다수의 왕국을 일으키게 되는데, 바로 10 개의 뿔입니다. 저는 어리석게 여기서 그 10 개의 뿔이 대표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혀 짐작이 가지 않지만 그들은 분명 로마 제국으로부터 발생한 다수의 왕국을 나타내며, "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는" (8 절) 이 작은 뿔로 결국에 가서는 끝이 납니다. 성경은 이를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그 절정에 달하는 엄청난 악인, 적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가리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모든 초강대국들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 그들은 모두 맹수들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는 세계 역사입니다. 이 끔찍한 괴물들은 입에서 피를 뚝뚝 흘리며, 그것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혹은 바사의 고레스이건, 아니면 알렉산더 대왕이나 네로 황제, 혹은 그 어떤 로마의 황제나 아니면, 근대의 스탈린 또는 히틀러, 아니면 폴 포트나 그 누가 되었건,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게걸스레 먹어 치우고 짓밟으며, 연달아서 세계 역사의 무대를 활보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왜 그럴까요? 이 괴물 같은 정권들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2-3 절을 보십시오, "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여기서 다니엘에게 보여진 것은 그리고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은 이 괴물들이 여러분과 저와 같은 종류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활한 인간의 바다에서 나옵니다. 성경, 특히 구약에서 바다의 이미지는 대개 그런 식으로 이해됩니다 - 민족의 바다, 인간의 바다와 같이. 이러한 세계 지도자들은 소용돌이치며 북적거리는 이 광대한 인간의 바다에서 나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러한 공포는 인간의 본성에서 생겨납니다. G.K. 체스터턴이 영국의 타임즈 신문에서 그에게 한 질문에 한 유명한 답변을 인용해보겠습니다 - "요즘 세상은 뭐가 문제일까요?" 이 질문에 뭐라고 답했을까요? 답변은 짧고 간단명료했습니다 - "제가 문제입니다." 이는 정말로 정곡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다니엘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인간 본성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유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도덕적 문제입니다. 2 절에서 무엇이 이 짐승들을 인간의 바다에서 나오게 했는지 주목하십시오. 그것은 땅에 대해 하늘이 행동을 취한 것, 즉 하늘의 네 바람이 인간의 바다를 강타한

<p>That really hits the nail on the head, doesn't it? This is what Daniel is being shown. Human nature is the problem. And it is not just a matter of genetics. It is a moral problem. Notice from v. 2 what causes these monsters to arise out of the sea of humanity. It is the action of heaven on earth – the four winds of heaven blowing on the sea of humanity. These monsters arise in opposition to heaven.</p>	<p>것입니다. 이 괴물들은 하늘에 반항해서 생겨난 것입니다.</p>
<p>We see this throughout the Bible, don't we? Calvary is proof of it. Calvary shows us that the nearer God comes, the more stirred up and churned up we become. God actually brings out the worst in human beings. That isn't what people like to believe but it is true. The Bible brings us face to face with reality. It tells us that when God comes near, man is shown up at his worst. Jesus brought out the very worst in the human heart – envy, pride, jealousy, selfishness, greed, vested interest, hatred. The very best man who ever lived – Jesus Christ, God in the flesh. And what do we human beings do? Do we give him the Nobel Peace prize? No!! – we crucify him!</p>	<p>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이를 봅니다. 갈보리가 그 증거입니다. 갈보리는 하나님이 더 가까이 오실수록, 우리는 점점 더 동요하고 흔들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인간의 가장 안 좋은 면을 끌어내십니다. 사람들은 믿고 싶어하지 않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과 직면하도록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가까이 오실 때 인간은 그 최악의 모습을 보인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최악의 것들 – 시기와 교만, 질투, 이기심, 탐욕, 기득권, 증오와 같은 것들을 끌어내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훌륭했던 인물인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무엇을 합니까? 그분께 노벨 평화상을 드립니까? 아니오!! – 우리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박습니다.</p>
<p>When God draws near, the sea of humanity is churned up in opposition. You can see it in the lives of individuals. Remember what Saul of Tarsus was like before he was converted? He was behaving like a predator, a wild man, bearing down on the infant church, that little company of believers in Damascus, breathing out murderous threats against the people of God. Why is a religious man, a man of such great intellect and considerable learning behaving like that? He is supposed to be a civilised, religious man and yet here he is like a wild beast ready to pounce on a small group of harmless Christians. Why? Because he is on the run. God is after him. And the closer God gets the more churned up Saul is in his opposition. Remember he was looking after the cloaks and coats of those who stoned Stephen, the first Christian martyr. He saw something of God in Stephen's face and he heard something of God in Stephen's dying testimony. The closer God gets, the more determined Saul is in his opposition and the more churned up he is in his enmity. That is human nature. We are not neutral! Our heart is a seething mass of hostility against God unless and until God does something in us. Human nature is like that – that is why the world is as it is today. Right down throughout history it has been the church that has brought out the worst in the powers that be – those in power and authority. It is the Christians who have been persecuted. You see it in the first century Roman empire. You see it today in countries like Iraq and Syria, in North</p>	<p>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면, 인간의 바다는 이에 맞서 소용돌이칩니다. 이는 개인의 삶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다소의 사울이 회심하기 전에 어떠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는 마치 야만스러운 약탈자와 같이 행동하고 있었으며, 다마스쿠스의 소수의 신도들이 모인 신생 교회를 향해 돌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살기 어린 협박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독실한 사람이, 그처럼 뛰어난 지성과 상당한 배움을 갖춘 사람이 왜 그 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교양을 갖춘, 독실한 사람이어야 하지만 여기서 그는 소그룹의 무해한 크리스천들을 덮칠 준비가 된 야생 짐승 같습니다. 왜일까요? 그가 도망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사울은 그에 맞서 점점 더 흥분해집니다. 사울이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인 스테반을 돌로 친 사람들의 외투와 코트를 맡아주고 있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스테반의 얼굴에서 하나님 같은 무언가를 보았으며, 스테반이 죽어가면서 한 간증에서 하나님 같은 무언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사울은 이에 대한 반항 의지를 더욱 굳히며 적대감으로 더욱 흥분해집니다. 그것이 인간 본성입니다. 우리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무언가를 하지 않는 한, 그리고 하실 때까지 하나님께 반하는 소용돌이치는 적대감 덩어리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그런 것입니다 – 그것이 바로 세상이 오늘날과 같은 이유입니다. 역사 전체를 통틀어 권력과 통치권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최악의 모습을 끌어냈던 것은 교회였습니다. 박해를 받아왔던 것은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이는 1세기 로마제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라크와</p>

<p>Korea, in Nigeria and many other countries in Africa. “All who would live godly lives in Christ Jesus will be persecuted”, says Paul to Timothy. Why? Because the nearer God comes, even through the lives of his people, the more churned up in opposition is the human heart. Is that not ultimately what is behind the opposition to CRE/SRI in our state schools? So much for those who believe in the upward march of progress – that humanity is advancing towards the solution of all its problems. Rather we are descending to the beasts – that is what Daniel is being shown in his vision. Each successive picture is worse than the one before it. At least the Babylonian empire was humane, thanks to God’s intervention in Nebuchadnezzar’s life. But as beast follows beast, so the picture gets darker and darker. Each beast gets more savage. There was more bloodshed, warfare, civil war, cruelty and persecution in the 20th century than in any century before. That is the history of the world! That is the future of the world!</p>	<p>시리아, 북한, 나이지리아, 그리고 아프리카의 많은 다른 나라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모든 이들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다가오실수록, 그 백성들을 통해서일지라도, 이에 대항하여 인간의 마음은 더욱 더 흥분해지기 때문입니다. 주 공립학교에서 CRE/SRI 와 같은 종교 교육을 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 뒤에 깔린 것이 결국은 그런 것이 아닌가요? 인간성이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쪽으로 진전하고 있다는, 진전의 상승 행진을 믿는 사람들 얘기는 그만하면 충분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짐승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 그것이 꿈에서 다니엘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이어지는 각각의 그림은 그 전에 나온 것보다 더 나쁩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삶에 개입하신 덕분에, 최소한 바빌론 제국은 인간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잇달아 짐승이 나오면서 그림은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각 짐승은 점점 더 야만적이 됩니다. 그 전의 어느 세기보다 20 세기에 더 많은 피를 흘렸고, 전쟁과 내전, 잔인함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세계 역사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미래입니다!</p>
<p>If our sermon ended here, there wouldn’t be much encouragement, would there? It is a depressing future, isn’t it? But Daniel is shown something more. Not only is he shown this panoramic view of world history but he is also shown something which is much more important for us:</p>	<p>만일 설교가 여기서 끝났다면, 그것은 그다지 격려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매우 암울한 미래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무언가 더 봅니다. 다니엘에게 세상의 이 파노라마와 같은 그림이 보여졌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무언가 역시 보여줍니다:</p>
<p>2. <u>Who holds the future</u> Look at vv. 9-10. All the world leaders eventually become yesterday’s men – they all eventually fade away. But that is not the case with “the Ancient of Days” – that is the eternal God, the God who is from everlasting to everlasting. People say, “Where was God when these 4 kingdoms were spreading out over the earth? Where was God when Hitler was trying to annihilate the Jews? Where has he been in the genocide in Bosnia or in Rwanda or most recently in Iraq and Syria? Where is God? Are his hands tied? Or is he just not interested in us?”</p>	<p>2. <u>누가 미래를 주관하는가</u> 9-10 절을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이 결국에는 과거의 사람이 됩니다 - 그들은 모두 결국에는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이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 즉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네 왕국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전멸시키려 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 보스니아나 르완다, 혹은 보다 최근에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집단 학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손이 묶이셨나? 아니면 그저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신 건가?”</p>
<p>The answer to these questions is here in vv. 9-10. God is there all the time. He is not ignorant about what has been happening. He is not indifferent to what has been happening nor is he unable to do something about what has been happening. The Ancient of Days is there. He has always been there and he will always be there. His throne is established and, we are told in v. 10, his court is in session. What an encouragement that must have been to Daniel, taking a stand for God there in ancient Babylon.</p>	<p>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여기 9-10 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어나고 있는 일에 무관심하시거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무언가를 하실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그곳에 계십니다. 그분은 항상 그곳에 계셔왔고 항상 그곳에 계실 것입니다. 10 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그분의 왕좌가 놓이고, 법정(법정)이 열릴 것입니다. 그곳 고대 바빌론에서 하나님을 위해 확고히 맞서고 있는 다니엘에게 이는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을까요.</p>
<p>All of those beasts described earlier in the chapter, terrifying as they are, are on a leash. God is</p>	<p>7 장의 초반에 묘사된 이 모든 짐승들은 비록 섬뜩하기는 하지만, 끈에 매여있습니다. 하나님이</p>

<p>restraining them – things could have been much worse. It is always so far and no further, as far as God is concerned. God is not in any way the author of any of these atrocities. Do not blame the inhumanity of man to man on God. God is in control – he is on the throne. He is sovereign. Authority was given, we are told, to each of these beasts – it was not theirs by right. It was given to them in the sovereignty of God. God had them on a lead and it was always so far and no further. What an encouragement the sovereignty of God must have been to Daniel and should be to us in our world and society today.</p>	<p>그들을 제지하고 계십니다 - 상황은 훨씬 더 나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관련된 한, 항상 어느 정도까지만 그리고 그 이상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떤 잔혹 행위들에 대해서도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행해지는 인간의 비인간적 행위에 대해 하나님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걸 주관하십니다 - 하나님이 왕좌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이 짐승들 각각에게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 이는 원래 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줄에 매어 놓으셨고 그것은 항상 어느 정도까지 만으로 그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주권이 다니엘에게 큰 격려가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세계와 사회 속의 우리에게도 큰 격려가 되어야 마땅합니다.</p>
<p>And there is the justice of God. Because God is God, because his throne is established and because his court is in session, there is justice. And, at the very end of v. 10, we are told that “the books were opened”. What books are meant? They are the books that record every crime, every cruelty, every injustice, every wrong as well as every kindness shown and every act of love and concern and compassion. And the day is coming when these books are going to be opened and people are going to be called to account for their actions, before God, the just judge. God is just and God is holy and fire comes out of his throne and a river of fire flows coming out from before him. Daniel is also shown the vast throng surrounding the throne of God.</p>	<p>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그분의 왕좌가 놓이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열리는 때문에, 거기에는 정의가 있습니다. 또한, 10 절의 제일 끝부분에 "책들이 펴 놓였다"고 말합니다. 어떤 책들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드러난 모든 친절함과 사랑에서 우러난 행동들 그리고 관심과 연민뿐 아니라 모든 범죄와 모든 잔혹함, 모든 부당함, 모든 잘못들이 기록된 책들입니다. 그리고 이 책들이 펼쳐지고 사람들이 공평한 심판되시는 하나님 앞에 불려와 그들의 모든 행동을 책임져야 하는 날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보좌에서 불꽃이 나오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옵니다. 다니엘은 또한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엄청난 군중을 봅니다.</p>
<p>Dare to be a Daniel, dare to stand alone. It is difficult standing alone, isn't it? It is not easy when the world is against you and nobody believes the same things that you do – in the office or workplace, at university or school, or in that social or recreational group? How can I dare to stand alone? What a difference it makes when I look with the eye of faith and see God worshipped by multitudes of angels, and surrounded by the saints in glory. I am reminded that one with God here on earth is a majority.</p>	<p>감히 다니엘이 되려 용기 내 보십시오, 감히 홀로 서려 해보십시오. 홀로 선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사무실이나 직장에서, 대학이나 학교에서, 혹은 사회 집단이나 여가 그룹에서, 세상이 여러분에 맞서고 아무도 여러분이 믿는 것과 같은 것을 믿지 않을 때, 이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감히 홀로 서려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수많은 천사들에게 경배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성자들에게 둘러싸이신 하나님을 볼 때 이는 어떤 차이를 만들까요? 여기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다수라는 것이 생각납니다.</p>
<p>Finally, Daniel is shown something very important and very precious. In vv. 13-14, he sees “one like a son of man coming with the clouds of heaven”. Here is Daniel trying to make sense of everything he has seen, trying to find something to hang on to in the midst of the confusion and strife. And he looks and what does God show him? He sees another world power coming, another kingdom – the ultimate kingdom, the ultimate world power. But this kingdom is <u>not</u> in the form of a beast. Rather it is “one like a son of man”. What a relief! Jesus is the true man, man as he was meant to be. Not man</p>	<p>마지막으로, 다니엘은 무언가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봅니다. 13-14 절에서 다니엘은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다니엘은 그가 보았던 모든 것의 의미를 찾으려, 혼란과 갈등 가운데 무언가 붙잡을 만한 것을 찾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라보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다니엘은 또 다른 세상의 권세가 오는 것을, 또 다른 왕국 즉 궁극적 왕국이자 궁극적인 세상의 권세가 오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이 왕국은 짐승의 형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자와 같은 이" 입니다. 얼마나 안도가 됩니까! 예수님은 예정되었던 것처럼 진정한 인간입니다. 짐승의</p>

<p>descended to the level of the beasts, but man made perfectly in the image and likeness of God. "One like a son of man" – that is who Jesus is. And yet he is more than a man isn't he? Because notice in v. 14 that as Daniel looks, this "one like a son of man" is "given authority, glory and sovereign power; all peoples, nations and men of every language worshipped him". This is definitely Jesus, isn't it? Who else could it be? Jesus, who in his incarnation was made a little lower than the angels, now crowned with glory and honour. He is the one "who, being in very nature God, did not consider equality with God something to be grasped, but made himself nothing, taking the very nature of a servant, being made in human likeness he humbled himself and became obedient to death – even death on a cross! Therefore God exalted him to the highest place and gave him the name that is above every name, that at the name of Jesus every knee should bow, in heaven and on earth and under the earth and every tongue confess that Jesus Christ is Lord, to the glory of God the Father" (Philippians 2: 6-11). This is the "one like a son of man" that Daniel saw in his vision. That title – "Son of Man" – appears 89 times in the Gospels and nearly every time it is used by Jesus to describe himself. It is his favourite title for himself. It is how he sees himself. He identifies himself as Daniel's "son of man". At his trial before the Sanhedrin, Jesus replied in answer to Caiaphas' question, "Are you the Christ, the Son of the Blessed One?" – "I am. And you will see the Son of Man sitting at the right hand of the Mighty One and coming on the clouds of heaven" (Mark 14: 62). And after he had been raised from the dead he said, "All authority in heaven and on earth has been given to me" – given through the Cross of Calvary.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Matthew 28: 18-19).</p>	<p>수준으로까지 전락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완벽하게 만들어진 인간입니다. "인자와 같은 이" -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예수는 인간 이상의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14 절에서 다니엘이 보았을 때, 이 "인자와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외에 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시어 천사보다 좀 더 낮은 위치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영광과 영예 가운데 왕좌에 오르십니다. 그분이 바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6-11)와 같은 이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그 이상 중에 보았던 "인자와 같은 이" 입니다. "인자"라는 호칭은 복음서에 89 번 등장하며 거의 매번 예수님이 자신을 묘사할 때 사용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가장 좋아했던 자신의 호칭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스스로를 인식했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다니엘의 "인자"와 동일하게 여깁니다. 공회에서 재판 받을 때 예수님은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대제사장 가야파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마가복음 14:62). 그리고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 갈보리의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것 -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태복음 28:18-19).</p>
<p>What does the future hold? So often it looks so bleak with truth and justice both denied. That is what it looked like at Calvary. Yet that Cross changed the course of history forever! God vindicated his Son. Truth and justice were victorious. Jesus rose from the grave to secure a wonderful future of hope and life and glory for those who would put their trust in him as Saviour and Lord.</p>	<p>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진실과 정의가 거부되면서 미래가 너무나 암울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갈보리에서 보여졌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그 십자가가 역사의 추세를 영원히 바꾸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억울함을 푸셨습니다. 진실과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시어 자신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삶과 영광의 멋진 미래를 보장하셨습니다.</p>
<p>Do you have a personal, saving relationship with the Son of Man, Jesus Christ? What an incredible encouragement and assurance to know and serve the ONE who holds the future!</p> <p style="text-align: right;">Amen</p>	<p>여러분은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구원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미래를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분을 알고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격려이자 확신입니까! 아멘.</p>